

# 안보환경에 적합한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방안 연구

## - 맥락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유용태\*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의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해군부사관과에 적합한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을 위해서는 지휘관리/훈육 전공 교육과 의사소통 교양교육을 통합하는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그 통합 교과목을 1학년과 2학년의 연계과목을 지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며 교수자의 검토가 가능한 면접, 보고서, 프레젠테이션의 가상적 상황을 수업에 적용하여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언어능력 과 더불어 다방향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Studies of Communicational Education Suitable for Security Environment

Yu, Yong-tae\*

### ABSTRACT

This study's goal is to consider deeper about the Context-Communication Study on candidates of future petty officers in community colleges, therefore the study uses theoretical approaches of the communication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petty officer majors in community colleges need to set a curriculum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ntext-Communication Study. The class, which is a continuous class from freshman to sophomore year, needs to be designed as a combination class of command/discipline major classes and communication studies. This study shows the detail ways of the Context-Communication Study to bring student's interests by using simulation studies with writing papers, training interviews, and presentations which all will be checked by their instructors. Instructors will get students to the point that they have upscale communication abilities and language abilities. Finally, this study shows limitations of the Context-Communication Study and suggests the further direction of research.

**Key word : Communication, Context of the situation, Context-Communication, Situational meanings, Language functions.**

## 1. 서론

우리나라 해군은 수상 · 수중 · 공중 입체전력의 통합운용능력을 확보하며 구축함 · 호위함, 이지스함 등 중 · 대형함을 보강하여 기동형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해군의 대형화 · 첨단화 · 기술 집약화와 더불어 정보화는 새로운 기술, 끊임없는 정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해군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소통은 해군 부사관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군 부사관은 해군조직의 상부와 하부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다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군 부사관의 다방향 소통은 병사를 관리하고 장교를 보좌하며 전투전문가, 기술전문가, 현장감독자, 리더/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해군 부사관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대 내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계 구조적 질서를 강조하는 군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는 조직유효성의 한계[1]를 가져오며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자율성 · 개인성에 의한 사고발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군 부사관의 의사소통능력 강화는 곧 무형의 전투력 강화이다.

해군의 의사소통은 구성원들을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생존 및 유지 ·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배양한다. 우수한 해군 부사관 자원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에서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군부사관과는 그 교육과정에서 군사지식/전투기술, 지휘관리/훈육에 비중이 높으며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하여 해군부사관과의 교양교육에서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미미한 수준이며 개인적 언어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으며 이로 인하여 임관 후 의사소통에 있어 일부는 상하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3]

해군은 구성원의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려고 있으

며[4] 해군부사관과도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수업방안과 교과목의 편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실질적 향상은 요원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의 교과과정에서 군 관련 전문 교육과정과 더불어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과목들을 개설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부사관과 관련된 의사소통도 리더십 또는 상담과 연관된 것[3][5][6][7]으로 의사소통을 직접 다룬 연구[8]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에서 필요한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보다 증진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부사관의 역할과 의사소통에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맥락적 의사소통과 이를 적용한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방안은 해군 부사관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개인적 언어능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2. 해군 부사관의 역할과 의사소통

### 2.1 해군의 공동체 문화와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공유 또는 나누어 갖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 행위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언어적 ·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동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 및 행동이 의사소통이다.[9]

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를 기호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

을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언어 기호를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9]

이와 달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 이외의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군에서 이루어지는 신호체계를 습득하고 신호에 따라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신호 즉 머리, 손,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일컫는다. 비언어적인 신호와 말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때, 말하는 사람이 진실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부분 직접 대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의사소통 당사자 간의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거나 거부하며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대신하기도 한다. 주로 감정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10]

의사소통 행위는 의사 전달과 실제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한 명령을 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을 말이나 글인 언어적 표현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이다.[11] 의사전달의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문화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 조직의 위계적 질서로 인하여 형성된 수직적 인간관계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보다 간접적인 표현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언어 표현은 집단의 조화를 해치고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12]

그러나 해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행위는 공동체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해군은 해상 전투를 목적으로 하기에 함정생활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의 형태에 따른 독자적 해군문화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군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각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다. 이러한 공동체 인식은 언어의 공동성과 등질성을 지니게 한다.

공동체는 사전적으로 생활이나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나 특성이 공통된다는 감각, 공통의 무언가를 지닌다는 특질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더 직접적이고 전체적이며 유의미한 관계이며 이와 반대로 사회는 형식적이고 추상적

이며 도구적인 관계로 인식된다.[13] 공동체는 이익, 욕망과 다른 헌신, 희생을 강조하여 다양한 종류의 공동 의식을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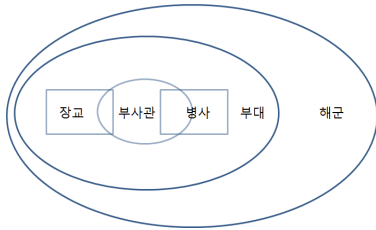
공동체는 언어 사용의 '규범'과 '관습'을 공유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의 수행과 해석에 대하여 공유하며 언어적 변이에 대한 해석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하임즈에 의하면 언어 공동체는 단순한 해석을 넘어 언어의 수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의미의 맞고 틀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분히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Lavov는 '언어의 형식 및 사용과 관련된 태도 및 가치관의 공유'를 언어 공동체의 요건이라고 하였다. 동일 형태의 언어 사용 공동체가 아니라 언어 사용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동일한 규범 체계를 가져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12]

해군 구성원의 의사소통에 작용하는 규범은 단순한 언어적 규칙이 아니라 해군에 내재된 가치를 발현하는 것으로 해군의 문화적 범위 내에서 시대를 거듭하면서 관습을 마련하고 이를 전통으로 유지한 것이다. 해군 부사관은 전문가이자 부대 전통의 유지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올바르게 완수해야 한다. 중추적인 실무를 충실히 담당하며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 공동체적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능력이다.

## 2.2 언어 공동체에서 해군 부사관의 역할

언어 공동체는 공동체의 범위에 따라 의사소통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외연은 중층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개인은 각 공동체에 적합한 언어 사용 규범을 준수하며 관습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외연은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 사용과 규범 그리고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해군에서 부사관의 외연을 확대하면 크게 해군이라는 외연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 부대라는 위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친밀한 범위에서 의사소통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부대에 해당한다. 부대 내에서 부사관은 장교와 병사 사이의 중복되는 영역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부사관의 언어 공동체 중층과 중복

(그림 1)에서와 같이 해군 부사관이 지닌 언어 공동체의 양상은 장교와 병사에게도 공히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와 병사 양쪽 모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병사와의 의사소통은 장교에 비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사와 보다 많이 중복되는 현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사관은 병사들의 리더로서 그리고 장교들의 조연자로서 혹은 전문가, 현장감독자, 동료 등 역할에 따른 다방향 의사소통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해군 부사관의 다방향 의사소통은 해군이라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더 균질한 부대 담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 부사관은 해군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동료들 사이의 융화와 부대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조화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해군 부사관은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해군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내용을 선정, 조직, 전개, 표현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언어적 수단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다방향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도 공동체 내의 문화를 반영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해군 부사관에게 필요한 것은 보고, 추론, 판단을 능숙하게 하는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목적이 강한 지시적 언어로 인식되지만 이 외에 감화적 기능을 통해 공동체의 동질감이나 공동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은 개인의 언어능력을 짧은 시간 내에 신장시키는데 주목하고 있는 편이다.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과 소통을 위한 유연한 의미해석을 제한하며 언어의 지시적

의미와 표현에 대한 교육으로 도구적, 규정적, 표상적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해군 부사관 간부선발도구에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군의 KIDA 간부선발도구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험의 배점이 높은 편이나<sup>1)</sup> 개인의 언어능력에서 글과 읽기라는 표현방식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군부사관과는 부사관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해군 조직에 잘 융화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관과 동시에 실제 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군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각 개인이 지닌 문화적 상이성을 제거하여 언어공동체에 빠르게 적응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군부사관과는 보통 2년 교육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그 동안 해군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의사소통 교육을 실행할 여지가 충분하다.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은 언어의 규범적 지식을 넘어 언어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라는 동일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3. 해군부사관과의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방안

#### 3.1 맥락적 의사소통의 전제와 의미

해군부사관과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교육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교육이며 그 중에서도 글과 관련된 특정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이 다대일의 교육상황에서

1) 해군 부사관 후보생은 필기고사에서 언어논리·자료해석에 각 30점, 총 60점의 배점을 지니고 있으며 총점의 50%를 차지한다. 해병대 여자 부사관 후보생은 언어논리·자료해석에 각 30점, 총 60점의 배점을 지니고 있으며 총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군전문대 장학생은 언어논리·자료해석에 각 70점 총 140점을 지니고 있으며 총점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해군 부사관의 언어논리력 평가영역은 어휘력, 어문규정, 언어추리, 논리와 추론, 독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부사관과에서는 이에 맞추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다대일의 의사소통 교육은 학습자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다대일의 상황에서 학습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대일의 의사소통 교육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어렵다. 실제 의사소통 행위는 배경지식, 말하는 습관, 시간과 공간의 인식, 비언어적 수단, 문화적 관습 등의 개인적 요인과 결부된다. 의사소통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해석의 상이성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 교육과 실제 의사소통의 괴리가 발생한다.

해군문화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고 교육과 현실의 괴리감을 최소화하며 공동의 목적달성에 유효한 방법은 맥락적 의사소통이다. 맥락적 의사소통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범이나 지식의 전수와 더불어 상황에 따른 해군문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유기적 공동체라는 통합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맥락에 따라 언어용법의 규칙인 언어기능과 상황적 의미인 맥락적 영역을 고려하여 언어와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학습하는 것이다. 맥락은 심리적 구성체로서 세계에 대하여 수신자가 가정하고 있는 부분 집합,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정보와 결합해서 다양한 인지효과를 낳는 개개 구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언어외적 맥락으로 양분되며 이러한 맥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식, 상황, 텍스트를 공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14]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능력 외에 비언어적 능력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언어적 능력을 통한 선택으로 의미협상과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맥락적 의사소통에서는 언어적 능력과 더불어 비언어적 능력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에서 의미해석은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전제를 통해 그 적합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명시적 의미나 함축의미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전제도 맥락으로 사용해서 대화의 적절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명시적 의미나 함축의미만 본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은 일상에서 다분히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끊어지는 경우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의사소통에서 쓰이는 맥락을 배경적 항목과 그 항목에서 필요한 지식까지도 선택하여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맥락적 의사소통은 주변 환경을 이용한 상황적 맥락과 사고방식을 고정하는 문화적 맥락이 작용한 경우에 유효하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두 의사소통 참여자는 불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조건에서 학습자는 동등한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오히려 의사소통의 불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양자 사이의 사회적 차이를 인정된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15]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학습자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학습자는 일방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참여자로 자신의 생각, 의견을 드러내며 해석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쌍방향적 관계가 가능하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성과 균형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의사소통의 참여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포용하는 대화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맥락적 의사소통은 상호 간의 공동의 영역을 확보하는 맥락을 토대로 언어기능의 지식습득과 더불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게 한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는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의미협상을 이루어냄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참여자는 상호 협동 속에 대화나 담화를 이끌어 간다. 맥락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상호 간에 의사소통의 기제로 작용하는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여 지식이 작용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 해군부사관과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사소통 참여자로서 의미협상을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참여가 해군문화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상황과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특정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협상을 이루어내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식하는 과정과 교수

자와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습득과 더불어 의사소통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의사소통의 전제는 상호작용 접근이다.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접근은 Sandra Savignon의 연구로 언어를 ‘의미만들기’로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16]

상호작용 접근을 통한 의사소통 교육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계발하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은 두 사람 이상 또는 한 사람과 문어나 구어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연관되어 있는 표현, 해석, 의미협상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의 특성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의사소통의 특성은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에게 상징적 체계뿐만 아니라 구어, 문어에도 구별 없이 적용되며 의미협상에 앞선 경험을 토대로 어떤 특정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참여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동일하지 않고 상대적이며 참가자들의 협동과 합리적인 상황에 의존적이다. 의사소통능력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문법적 능력 : 언어의 문장 구조 지식
2. 사회언어학적 능력 : 참가자들의 역할,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주어진 맥락에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
3. 담화 능력 : 담화의 다른 패턴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주제에 맞게 문장이나 발화를 연결하는 능력, 구어나 문어 텍스트의 큰 단위를 유추하는 능력
4. 전략적 능력 : 언어학적, 사회언어학적 그리고 담화 규칙의 불완전한 지식을 보상하고, 제한 요소, 즉 피로, 주의산만, 부주의 같은 부분도 보상하는 능력

상호작용 접근의 교육과정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3개의 기능과 관련한 교육과 그 기능들을 섞은 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의사소통능력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이다. 첫 번째, 언어기능 교육은 보편적으로 언어용법의 규칙을 익히고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교육은 언어의 명시적 기능 내지

함축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통적 방식에 따라 언어 교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을 위한 언어교육은 명령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행위나 학습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적합하게 끌어내는 개념적 기능이다. 세 번째, 개인적 사용의 언어교육은 언어 습득에서의 정서적 측면, 태도, 가치관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포함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요소는 대인관계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두 부분은 앞의 세부분을 섞어 놓은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이나, 가상, 예행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요소는 의사교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분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공동체를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접근의 교육방안은 학습자들이 이 요소들을 구분하거나 건너뛰지 않으며 상호작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이러한 교육방안은 문법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나 담화능력을 신장시켜 전략적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는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조건은 참여자의 사회적·문화적 경험의 유무, 의미의 다양성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 등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 의사소통 교육이 단일한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라면 맥락적 의사소통은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협상이라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언어 기능을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의미의 영역까지 넓히는 것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언어 기능과 맥락적 의미라는 이 둘을 융합하여 교육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적 언어능력에 가치관 및 문화적 양식을 익히는 교육적 효과까지 얻게 된다. 학습자는 언어능력을 의사소통능력으로까지 연결시키며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공동체 문화의 양식에 대한 관념적 인식까지 가능해 진다.

### 3.2 맥락적 의사소통의 교육적 적합성

공동체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유하게 되며 공유된 경험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이 된다.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집단 기억을 매개로 한 고유한 양식이다. 이 양식은 의사소통을 통한 전승에 의존하며 그것의 지속적인 전달은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교육이라는 물리적 속성에 근거해서 일종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회상과 재연을 역사와 전통 안에서 자유롭게 처리하게 한다. 즉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상이한 개인들을 유기적 공동체로 묶어 낸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고유성은 상이한 공동체와 세계를 특징짓는 감정과 행위의 양식이다. 이 고유성은 그 공동체의 특수성에 뿌리를 둔 독자적 문화에 해당하며 자신과 외부를 인식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독자적 문화를 기반으로 자신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나 세계에 대한 인식체계를 지니고 있다. 공동체 문화는 구체적으로 의식되지 않지만 공동체의 관행, 광범위한 양식에 상응하여 개인들이 세계를 파악하게 한다.[17]

해군은 바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다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바다는 해군의 정서적 바탕이 됨과 동시에 해군문화가 형성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바다를 보는 해군의 시각은 해군문화의 형성, 발전, 변형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전통과 관습이 되기도 한다.[18] 해군은 바다에서 군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군이다. 해군은 군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관계가 밀도가 높으며 군함의 기계를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권한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어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애착이 높다.

해군은 작은 실수도 생명과 직결되는 가혹한 환경을 지닌 바다에서 전문화된 기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함장에서 수병까지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하며 협동과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이끌어냈다. 군함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며 작은 실수가 전체 구성원의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해군부사관과에 지원하는 세대는 해군문화와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해군부사관과에 진학하는 세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권위적 위계질서를 싫어하

며,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고 있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각자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개인은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는 해군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해군문화와 해군부사관과(副士官科)에 지원하는 세대의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맥락적 의사소통은 가상적 상황에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다. 가상적 상황은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상황에 따른 해군문화에 대한 이해로 전이시키며 그 문화의 고유한 양식과 인식체계를 익히게 한다. 맥락적 의사소통의 과정은 지식을 전달하며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 양식에 대한 총체를 체계화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은 주어진 상황을 공동체의 문화적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하여 자신의 객관성과 문화적 인식의 주관성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속적인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개인에게 유기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인식체계를 확장한다. 해군부사관과는 해군 부사관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전문대학이라는 특성 상 교육과정은 군대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구성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해군문화를 익숙하게 하며 부사관으로서 빠르게 해군에 적응, 융합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는 장교·병 모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해군 부사관 자원을 양성하는 방안이다. 해군부사관과의 교양교육에서 해군 간부선발도구(KIDA)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간부의 기초자질을 구비하기 위한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이 적합하다.

### 3.3 맥락적 의사소통의 교육방안

해군부사관과에 의사소통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맥락적 의사소통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대대일의 수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해군부사관과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사소통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 필수 교과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소통만 전문으로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락적 의사소통은 해군부사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에서 지식 전달과 참여자의 공동적

이해가 공히 요구되는 교과목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필수적인 군 리더십과 관련 교과목에 효용성이 높다. 해군부사관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해군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군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은 부사관과(副士官科) 학생들을 해군 부사관으로 자각하게 하며 해군문화와 부사관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전문대학에서 NCS 기반으로 과목을 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CS 직업기초능력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NCS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능력의 평가항목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19] 이 평가항목은 일방적 의사소통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공히 요구한다. NCS의 의사소통능력은 전통적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해군부사관과의 NCS의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상황과 맥락에 따른 자신의 의사표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학습자의 의사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사용되는 분류, 예측, 묘사와 같은 현실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자기표현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목적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겪을 경험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예정해 놓은 가상적 맥락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며 학습자는 가상적 맥락에 따른 자기의 의사표현을 진행하면서 언어 사용과 상호작용을 통해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맥락적 의사소통의 교수자는 가상적 맥락을 설정하고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수업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신자가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무엇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할 때, 학습자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20] 가상적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의사소통 경험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

은 전통적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사소통의 다양한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해군부사관과의 교육은 해군에서 실질적으로 부사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가상적 상황과 연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공교육과 연계하여 해군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절차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업방안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참여자의 상호작용적 구조를 익히게 할 수 있으며 해군문화를 토대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기반이 된다. 수업에서 진행되는 맥락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습자는 해군에서 쓰이는 직접적인 표현과 관습적인 표현을 익히게 된다.

의사소통 수업에서 다대일의 상황은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들면 의사소통에 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학습자에게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고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에 관여하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해군부사관과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통합수업이 가능하다면, 1학년과 2학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수업을 운영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양교육의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과 전공교육의 지휘관리/훈육에 해당하는 군 리더십과 통합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1학년과 2학년의 연계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사소통 연계 교과목

교과목명	대상	주요 활동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1)	1학년	리더십, 언어능력, 소그룹 활동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2)	2학년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1학년 소그룹에 대한 지휘관리/훈육

<표 1> 의사소통 연계 교과목에서와 같이 통합수업은 1학년의 수업과 연계된 2학년 수업을 동시에 개설하고 각 수업의 주요활동에서 1학년은 실무자의 역할, 2학년은 평가자 내지 리더의 역할로 참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학년과 2학년의 연계 수업은 수업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 주요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기표현 중심 교육 : 면접

2학년 학생은 면접관이 되어 면접자를 직접 관찰하며 면접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교수자는 2학년 학생에게는 면접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 후에, 면접관 질문을 준비하게 하며 선별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하게 한다. 이를 통해 2학년 학생은 해군부사관 면접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1학년 학생들은 면접을 준비하게 하면서 즉각적인 응답, 면접질문의 지시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고 답변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의사소통 행위를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면접이라는 가상적 맥락에서 1학년 학생들은 면접에 관련된 여러 요소에 대한 이해와 자기표현의 방법을 통해 해군의 정체성을 함양하며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나. 목적 중심의 언어교육 : 보고서

해군부사관과 연관된 문서들을 1학년 학생이 작성하고 2학년 학생은 직접적인 보고서 검토를 진행한다. 교수자는 1학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2학년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글과 말에 대한 검토는 언어기능에 대한 향상과 동시에 개별적 관계를 기반으로 끈끈한 동료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학생 자신의 문서작성과 대화의 문제점을 사진에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교수자가 검토하여 실질적인 문서작성의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다. 대인관계 중심 교육 : 프레젠테이션

1학년 학생에게 해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한다. 2학년 학생은 프로젝트 팀의 리더나 조연자로 참여하게 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1학년 학생의 개별적인 진행사항을 교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의 리더나 조연자로서 참여하고 교수자에게 보고함으로써 해군부사관의 다방향 의사소통

을 경험한다. 1학년 학생은 프로젝트의 구성과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맥락적 경청을 익히고 유기적 공동체의 경험을 한다. 1학년 학생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팀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의 협동과 조화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해군부사관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해군에 입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교육은 상황적 제시와 이에 따른 맥락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방안은 개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문화를 배경으로 부사관에게 필요한 다양한, 다방향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학습자는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이자, 해양인이자, 해군으로서 자질을 배양할 수 있으며 실제 군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4. 결 론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이 다대일의 교육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학습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은 맥락적 의사소통이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맥락에 따라 언어용법의 규칙인 언어기능과 상황적 의미인 맥락적 이해의 영역을 고려하여 언어와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학습하는 것이다.

맥락적 의사소통의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상적 맥락에 따른 실질적인 의사소통 경험은 실제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또는 다방향의 의사소통능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군부사관과의 교육은 해군에서 실질적으로 부사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가상적 상황과 연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해군부사관과의 지휘관리/훈육의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을 통합하여 교과목을 개설하고 1학년과 2학년의 연계과목으로 지정하여 맥락적 의사

소통 교육을 하는 방법이다.

맥락적 의사소통 교육방안은 학습자에게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고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에 관여하도록 교과목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상황적 제시와 이에 따른 맥락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안은 개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문화를 배경으로 부사관에게 필요한 다양한, 다방향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적인 교육에 적용하여 효과의 검증 등을 통한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남봉우 · 서인덕, “육군 부사관의 감성지능이 군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7권제4호, p.198, 2010.
- [2] 김천규 · 김호용, “부사관학과 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고등직업교육』 15권 3·4호, p. 155, 2014.
- [3] 김태현, “부사관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pp. 44-45, 2006.
- [4] “해군 군수사, 일류 해군문화 운동 앞장”, 신아일보, 2010.09.29.
- [5] 김수창, “전문대학 부사관과(副士官科) 리더십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위기관리』 9권 3호, 2013.
- [6] 김영중, “군 전문인력 양성학과 교육과정 개발 방안”, 『융합보안』 13권 2호, 2013.
- [7] 김천환 · 진종순, “군 조직 내 의사소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7권 2호, 2010.
- [8] 송준화 · 천명희, “국가안보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사관 후보생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 연구”, 『융합보안』 14권 6호, 2014.
- [9] 왕문용, 『국어와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p. 74, 2008.
- [10] P. J. HILLS 저, 장상호 역, 『교수,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교육과학사, pp. 64-65, 1987.
- [11] 박원, “언어적 의사 소통 양상”, 『인하교육연구』 6호, p. 6, 2000.
- [12] 박재현,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사회평론, pp. 145-163, 2013.
- [13] 레이먼드 윌리엄스 저, 김성기 · 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pp. 106-107, 2010.
- [14] 김재봉, “맥락적 의사소통적 기능(1)”, 『인문과학연구』 제16집, pp. 4-5, 1994.
- [15] 전숙경,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 제45집, p. 205, 2009.
- [16] Savignon S.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 classroom practice*, Reading, 1983.
- [17] 엘렌 스윈지우드 저, 박형신 · 김민규 역, 『문화 사회학이론을 향하여』, 한울. pp.136-139, 2004.
- [18] 제정관 · 최재덕, “한국 해군의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p. 2, 2006.
- [19] 정종태, 『NCS 이해와 취업 성공 전략』, 시그마프레스, p. 28, 2015.
- [20] 조희정, “가상 맥락을 도입한 글쓰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0집, p. 503, 2007.
- [21] Marfie Berns 저, 전한성 역, 『의사소통능력과 맥락』, 한국문화사, 2012.

## [저자소개]



유용태 (Yu, Yong-tae)

2001년 2월 학사  
2003년 8월 석사  
2013년 8월 박사

email : yong0208@hanmail.net